농도 전남 '논 임차료' 4년간 28% 급등…전국 최고 상승

쌀 생산비 36.3% 차지…전남 생산비 상승률 9개道 최고
농어촌공사 '임대수탁 논' 전남 임차료 1년새 15% '껑충'
쌀값 폭락·과도한 임차료 부담…임대료 상한제 등 보완해야

최근 4년간 전남에서 쌀을 생산하는 데 드는 농지 임차료가 전국 9개 도(道)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農道) 전남의 논 임차료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없어 '경자유전의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쌀 생산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벼농사를 짓는 데 전남에서 드는 생산비용은 10a(1000㎡)당 77만7358원으로, 4년 전인 2017년(64만2920원)보다 20.9%(13만4438원) 상승했다.

전남 쌀 생산비 상승률은 전국 평균(14.6%)을 훌쩍 넘을뿐더러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년(74만1202원)보다는 4.9%(3만6156원) 늘었는데, 역시 전국 평균 상승률(2.4%)의 2배 수준으로 뛰었다.

전남 쌀 생산비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오른 건 비용의 36.3%를 차지하는 농지 임차료(토지 용역비) 상승률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10a 기준 전남 임차료는 지난해 28만2029원으로, 4년 전(22만204원)보다 28.1%(6만1825원) 인상했다.

전국 평균 농지 임차료 상승률은 20.8%로 집계됐다. 9개 도 가운데 전남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전북 27.1%, 경북 2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임차료는 1년 새 5.2%(26만8111원→28만2029원) 올랐는데, 같은 기간 평균 인상률(2.3%)의 2배를 넘었다.

전남 쌀 생산비용 가운데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6.3%에 달하기 때문에 쌀값 폭락 속에서 농민들의 이중고는 심화하고 있다.

전남 농지 임차료가 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5%(2019년)→36.2%(2020년)→36.3%(2021년) 등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전국 쌀 생산비 중 임차료 비율은 35.9%로, 전남은 이를 웃돌았다.

농업용 면세유와 각종 농자재 가격, 인건비가 급등한 올해도 전남 농지 임차료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수탁 사업'을 통해 책정된 올해 8월 말 기준 전남지역 임대 수탁 논 임차료 계약금은 ㎡당 251원으로, 전년(219원)보다 14.6% 뛰었다.

전국 논 임차료는 같은 기간 239원에서 238원으로, 오히려 0.4% 떨어졌다. 전남 인상률은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다.

4년 전인 2018년에 비해 전남 논 임차료가 18.4% 오른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 새 임차료가 크게 뛰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4년간(2018년~2022년 8월 말) 136개 시·군별(특·광역시 제외) 한국농어촌공사 임대 수탁 논 임차료 계약금 상승률을 살펴보니 무안 상승률은 무려 115.4%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지난 2018년 ㎡당 152원이었던 무안 논 임차료는 올해 327원으로, 4년 새 115.4% 뛰었다.

같은 기간 신안(58.9%)과 순천(50.3%), 보성(32.4%), 장흥(22.6%), 화순(18.6%) 등도 전남 평균 상승률(18.4%)을 웃돌았다.

임차농의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임차료 급등을 제어할 장치는 사실상 없다.

농어촌공사 '농지임대 수탁' 사업 임차료 계약금은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당사자끼리 협의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다.

임차료 상한은 조사된 지대별 관행 임대차료의 평균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는 시장 거래 가격을 따르는 방식으로, 주변 지가가 상승하면 농짓값도 따라 오르게 된다.

위성곤 의원은 "임차농이 전체 농민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가운데 농지는 농업인들이 식량 생산 목적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과도한 임차료 부담이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5년인 최소 계약 기간의 확대, 생산비와 연동한 임대료 상한 산정 등을 포함해 농가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답례품은 우리 농산물로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신·가운데)와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가 '29회 광주세계김치축제' 행사 기간(20~23일) 남구 임암동 광주김치타운 일원에 마련된 '광주전남 상생협력 판매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고 로컬푸드 30여 종과 빛찬들 햇쌀 등을 최대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수협 무자격 조합원 전남 1213명 '최다'

전체 30.7% 비중

전남 20개 수협 조합장을 뽑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내년 3월8일)가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남 무자격 조합원은 올해 1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남 무자격 수협 조합원은 1213명으로, 전체 무자격 3953명의 30.7%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전남에 이어 제주가 831명으로 뒤를 이었고 경남 606명, 제주 557명, 강원 549명, 충남 376명, 경기·인천 219명, 전북 213명, 경북 146명, 부산 57명, 서울 17명 등 순이었다.

올해 전남 무자격 조합원은 전년의 절반(-46.5%) 수준으로 솎아지긴 했다.

직전 선거가 있기 1년 전인 2018년 전남 무자격 조합원은 3051명이었으며, 2019년 1741명, 2020년 1375명, 2021년 2269명 등으로 오르락내리락했다.

'가짜 조합원' 등 무자격조합원 논란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3번째 선거를 앞두고도 여전히 대비책은 미비하다는 것이 소 위원장의 지적이다.

무자격조합원 정비의 필요성을 묻는 소 위원장의 질의에 수협 측은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수협법 제3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서 실질 어업인의 사기 저하 및 조합원 간 이질감 확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합은 지속해서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조합원 수가 감소하게 되면 수협의 존립기반이 약화하고 조합의 자기자본 감소와 신용사업 등의 경제성 상실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소 위원장은 "선거 직전에만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려다 보면 미처 고려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민들을 우선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조합원 정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이 철저히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공공비축벼 포대벼 매입 검사

광주·전남 675개 검사장서 진행

올해 생산된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가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이 기간 2022년산 공공비축벼와 2021·2022년산 시장격리곡 포대벼 매입 검사를 광주·전남 675개 검사장에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비축벼는 포대벼와 마르지 않은 산물벼로 나뉜다.

시장격리곡은 포대벼로, 농관원이 매입 검사를 한다.

이달 초 매입 검사를 시작한 산물벼는 각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45곳에서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2022년산 공공비축벼 검사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진행해 매입을 조기 완료하고자 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2022년산 메벼에 한해 수분을 13.0~15.0%로 건조한 벼를 40㎏(소형)과 800㎏(대형) 단위의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각 시·군은 매입 대상으로 2가지 품종을 선정했으며, 시·군별로 약정하지 않은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벼 품종 확인은 검사 당일 전체 매입 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추출해 시료를 채취한 후,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 검정(DNA 검사)을 실시한다.

매입 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한 올해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40㎏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단 매입 직후에는 40㎏당 3만원의 중간 정산금(우선 지급금)을 준 뒤 연말에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 농관원은 농촌인력 감소로 인한 농민 불편을 덜기 위해 대형 포대벼(800㎏) 매입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대형 포대벼 매입 목표 비율은 97.3%로, 최근 대형 매입 비율은 88.0%(2018년)→93.0%(2019년)→95.8%(2020년)→96.9%(2021년) 등으로 늘었다. 또 농업인 대기 시간을 줄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별·농가별 시차제 검사를 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로컬푸드 활성화 통한 먹거리 선순환 기반 확대

aT, 전남로컬푸드 큰잔치서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열린 '전남도 로컬푸드 큰잔치'에서 전남도와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춘진 aT 사장은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며 먹거리 탄소 중립을 위한 로컬푸드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번 로컬푸드 큰잔치 행사를 통해 전남 우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이미지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중소농의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유흥적합)

▶ 중심 상업지구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6억8천

(보3천,월수익 380만 ,융 4억)
(유흥가능 , 사무실 , 빠 , 룸 ,홀덤바)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 월수익- 720만
● 연수익 - 9000만

● 매가 - 14억5천
(융자 7억)

신축원룸 (공실없음)

경매교육[기초반 특수반]

*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010-2614-9801